

약용작물 GAP 문제점은 없나?

판로보장, 구매지원 등 GAP농가 실질적 지원 필요

약용작물 잔류농약 현실적 허용기준 마련도 시급

몸과 마음의 건강,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웰빙' (wellbeing)이 대유행이다. 이같은 웰빙 바람을 타고 식품 특히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이력제의 도입은 시대적 추세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약용작물도 생산이력제의 한 형태인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를 도입 시범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나름대로 원료의약품의 관리차원에서 GMP, GSP 등과 연계한 한약재 품질인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약용작물 GAP 시범사업은 지난해 황기, 당귀, 구기자, 맥문동, 작약 등 5개 품목, 1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작약을 제외한 대신 지황, 오미자, 산수유, 황금, 의이인 등 5개 품목을 추가 총 9개 품목에 대해 74농가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GAP시범사업 참여농가에 대해 토양 및 수질검사, 수확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 분석비용을 지원한다.

생산이력제가 갖는 최대의 강점은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병충해방제 등록약제 없어

GAP인증 한약재의 경우 소비자들은 포장지에 적힌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누가 생산하고 가공해서 공급된 상품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생산이력제의 시작은 농민들의 영농일지 작성이다. 약용작물 GAP참여농가는 재배 품목 종자보증확인서에서부터 피종일시, 비료시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록해야 함은 물론 표준재배관리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농약사용은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약용작물의 경우 병충해방제 약제가 고시된 품목이 GAP시범대상 9개 품목 중 황기, 당귀, 구기자, 의이인 등 4개 품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품목의 경우는 병충해 방제에 따른 별도의 등록된 약제가 없어 결과적으로 병충해방제를 위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유기농 재배의 부담을 농민이 떠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지침에 병해충 방제요령에 의한 약제명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 약제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생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된 5개농약은 이미 국내에서는 토양잔류성 문제로 사용금지된 것들로서 국산한약재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성분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있는 분석을 위하여 기준이 설정된 5개성분 외 실제 사용가능한 농약들에 대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검출시 적용기준이 없는 관계로 적 부 판정은 물론 사후 처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의 경우, GAP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서는 "병해충방제요령"에 명시되어 있는 약제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 다른 약제를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가 하면, 관리지침에 따라 허용된 약제를 사용하였을 경우라도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었을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일선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한약재에서의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별도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올해는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서는 식품공전상의 "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의잔류농약잠정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한약재보다 잔류농약허용기준적용이 훨씬 강화되는 셈이다.

약사법에 의할 경우 약용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DDT, BHC 등 5성분만 설정되어 있는 반면, 농산물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용할 경우 86성분으로 감사항목이 늘어나고 또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관계로 농산물잔류농약허용기준 중 가장 최소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어 이 또한 문제다.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급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일종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법으로 저농약 내지는 무농약 재배를 하다보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일반재배법에 비해 3분의1수준으로 줄이더라도 생산원가는 30%이상 증가하는 것도 생산농가로서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천연외비 증식 등 직간접적인 생산비 지원과 적절한 구매지원방안도 GAP제도 정착을 위해 시급히 강구돼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GAP제도가 국제적 추세이고 안전성검증을 통한 소비자신뢰확보가 시대적 조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AP약용작물 제도가 원가상승만 초래할 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귀를 열어야 한다.

복지부 추진 품질인증제와도 연계 필요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한약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식품과 곧 등장할 건강기능식품 역시 우수농산물관리규정(GAP)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의무사항이나 강제규정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업체에서 일반 작물보다 원가비용부담이 높은 GAP상품을 구매하겠는가 하는 대목에서는 사실 회의적이다. 이와관련 GAP약재 판로확보를 위해 GAP 약용작물을 소비 또는 대량 구매하는 업체에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도 GAP생산품의 소비촉진을 하는 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용작물 GAP상품이 하나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 생산관리된 GAP약용작물을 생산자단체에서 일괄 구매 가공해서 하나의 브랜드 상품으로 직공급하는 것,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구매지원책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외에도 GAP 생산품이 시장성을 갖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 품질인증사업과의 연계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복지부의 한약재품질인증사업의 주요내용은 표준재배지침에 의해 생산하고 수확후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은 GSP, GMP 제조업체나 공장에서 품질인증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약재 품질인증사업이 기실은 한약재의 안정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내용상 농림부의 GAP와 동일한 취지의 사업임에도 실제 농림부 주관하에 시행되는 GAP 생산품이 복지부의 품질인증제품의 판로범위 안에 진입이 안될 경우,

GAP제품으로서 차별화된 판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약재의 경우 일반 식품으로도 사용되지만 대부분이 의약품원료인 한약재로 소비 또는 거래되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

2005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GAP사업은 아직 별도의 운영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범사업 참여농가는 물론이고 생산관리단체의 인력이나 관리운영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약용작물 GAP시범실시기관인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GAP인증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GAP 생산품의 저온저장시설 지원과 구매지원, GAP약용작물의 판로확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비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생산이력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

이미 10년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생산이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생산이력제는 개방화 시대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소비자신뢰확보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인 것만은 확실하다. 생산이력제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어떻게 분담하고 최소화할 것인지 적절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높다. (문정희)

중국에서는 ...

안국의 중약재 표준화 및 무공해 재배 기술

하북성 안국시는 중약재관리(GAP)사업을 농민들에게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안국시 八五村 녹색약재 재배 시범기지의 약재농들은 2002년도의 중약재 수확이 전년보다 무려 100여 원(매 畝 당)이상이나 높아졌다고 한다. 2002년 안국시의 중약재 전체 재배면적은 1만hm²에 달하고 그중 1300hm²여 면적은 표준화된 재배방법을 시행했다고 한다.

안국시는 오래도록 藥都라 불리워왔으나 그 명성에 반해 최근 몇 년간 안국 중약재는 중금속함량의 기준을 초과하고, 잔류농약과 오염문제가 있으며, 약재품질은 저하되었다는 등 국제시장에서 여러차례 타격을 입고 수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다.

이런 피동적인 국면을 전환하고자 안국시는 "綠色藥都"로 무공해 약재생산을 발전시켜 새로운 약도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표아래 적극적으로 독성제거 및 조직배양 등 선진 생물기술로 나아가고 있다.

약재재배시에도 시비방법과 생물적 방제 기술법으로 화학적 제초의 문제점을 해결해가고 있다.

2002년 전체 시 1만hm²의 재배지는 생물농약으로 병충해를 방제하였다. 중약재 생산품질관리규범과 중약재가공조작규정을 제정하여 "新八大藥"이라는 24종 무공해약재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130hm²의 종묘 번식기지와 萬畝 중약재표준화 재배시범기지를 건설했다.

현재 안국시 무공해약재 재배면적은 이미 1300hm²를 초과하였으며, 중약재의 유해물질과 잔류농약 함유량을 국가적 표준규정으로 완전 제어할 수 있어 합격률 100%에 이르고 있다. 화학비료 이질산염 잔류량 또한 국가가 정한 지표에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중약재의 품질이 향상되어 안국시의 2002년 중약재 연 매출액은 15억 원에 이르렀다.

〈옴니허브 中藥研究干道息 발체내용〉